

범여 대선주자들 경선 기싸움 시작

“어게인 2002... 광주민심 잡아라”

현역의원 확보 총력전...일부 이미 캠프 합류

인신 공격·검증 논란·루머...신경전도 치열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들이 광주 민심을 둘러싸고 불길 경쟁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국민경선이 10월 초·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은 시간은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들은 우선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민심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 의원들은 이미 각 대선 예비주자 진영에 합류한 상황이다.

우선 친노 진영의 서갑원 의원(순천)은 이해찬 전 총리 캠프에 포진하고 있다. 서 의원은 4명 이상의 비호남권 동료 의원들을 설득, 캠프에 합류시켰으며 광주·전남 조직을 총괄하며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캠프에는 양형일 의원(광주 동)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동영 전 의장의 경선 정책 등을 맡고 있는 것은 물론 광주지

역 조직도 챙기고 있다. 여기에 정동채(광주 서), 염동연 의원(광주 서갑)도 표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물밑으로는 정 전 의장에 대한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여권 주자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듯 손학규 전 경기지사 캠프에는 광주지역 의원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우선 김동철 의원은 동고동 등 구 권역과의 정치적 가교 역할을 맡으며 사실상 손 전 지사의 정치특보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강기정(광주 북갑), 지병문 의원(광주 남), 김태홍 의원(광주 북을) 등도 손 전 지사의 대외 행사에 참석하며 거리를 좁히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강기정, 지병문 의원 등은 아직 지지 선인과 캠프 합류는 하지 않았지만 손 전 지사쪽으로 마음이 기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들은 아직 캠프에 합류하지 않은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을 상대로 구에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아직 확실하게 대통령 신당이 창당되지 않은 데다 경선 관세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역의원들이 설부터 캠프에 합류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 민심을 잡기 위한 범여권 예비 대선주자들간의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범여권 주자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가장 높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게 대한 검증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손 전 지사가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광주 정신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 김대중(DJ)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손 전 지사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은근히 흘리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시절,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에 반대했던 전력이 거론되고 있으며, ‘한·신·정’으로 불리우는 정동영 전 의장과 친연배, 신기남 의원은 민주당 및 민주세력 분열의 주역이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범여권 예비 대선후보들은 서로 자신이 광주 정신의 적자며 민주세력의 정통성을 승계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광주 민심을 놓고 양보없는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가짜 박사’ 파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신정아(35) 전 광주비엔날레 감독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피한 채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박사’ 진실 미궁속으로?

신정아씨 “결백 증명하겠다” 美 출국...동국대 채용 당시 학력조회 불분명

‘가짜박사’ 파문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파문의 당사자인 신정아(35) 전 광주비엔날레 감독이 지난 12일 국내에 몰래 입국한 뒤 16일 돌연 뉴욕으로 출국해 ‘가짜 박사’ 의혹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신씨는 “논문 표절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내몰고 있다. 고졸 학력으로 끌어내린 언론에 할 말이 없다”고 밝히는 등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신 교수의 가족인 A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 교수는 미국 예일대에 가서 (박사학위를 입학할)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고, 변호사 등과 법적 대응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 교수가 캔자스주립대학사학과와 예일대 박사학위를 받았

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신 교수가 큰 오빠와 함께 유학생생활을 했고, (캔자스주립대) 학부 과정만 7년을 다녔는데 3년 다니다가 중퇴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출국 배경을 둘러싸고 관련 신씨가 학위가 진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뉴욕을 택했다는 지, 도박성 출국인 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동국대가 2005년 9월 신정아씨를 교수로 임용할 당시 미국측에 발송했다고 주장해 온 학력 조회 요청 공문이 미 대학측에 접수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예일대와 캔자스대에 신씨의 학위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는 동국대측 주장의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드 코언 캔자스대 홍보실장은 이 대학이 학적 관리 업무를 위탁한 내셔널 스투던트 클리어링하우스(The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에 신정아씨의 학위 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동국대는 지금까지 “2005년 9월 초순 예일대와 캔자스대에 신씨의 학력 조회 요청 공문을 등기 항공우편으로 보냈다”며 신씨의 학력 조회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동국대가 보유하고 있다는 영수증에는 등기번호와 수신 국가(미국)만 나와 있을 뿐 실제 수신처의 주소는 명기돼 있지 않아 실제로 동국대가 우편물을 예일대와 캔자스대에 발송했는지 여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상일 동국대 학사지원부장은 신정아씨 사건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위기의 광주비엔날레

총체적 개혁만이 살 길

원점서 다 뜯어 고쳐라

광주비엔날레는 그동안 6회째 행사를 치르면서 정체성 논란과 함께 수익모델 창출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전시감독의 기획의도에 따라 주제가 매년 바뀌면서 광주비엔날레만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한다 내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위한 마케팅 전략이 미미했다는 것이다.

확고한 정체성 확립, 위상 되찾아야

비전 창출할 ‘핑크탱크 기능’ 절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데에는 무엇보다 비엔날레의 미래 비전을 창출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핑크탱크’의 부재가 크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내부에 연구기획 기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단의 미래를 담보하고 행사 개최 노하우를 축적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자보니 임기를 채우고 떠나는 재단 이사장과 예술총감독의 입맛에 따라 재단이 휘둘러왔다.

강연균 비엔날레 재단 이사는 “비엔날레의 미래를 담보하고 정체성,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능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현대미술의 담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등 비엔날레의 위상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세계적으로 60여개의

비엔날레가 난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비엔날레가 살아남으려면 차별화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난해한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것만으로는 일반 대중들의 발길을 끄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람객을 행사장으로 끌어들이 새로운 미술 수요를 개발하자는 얘기다.

박정기 조선대 미대 교수는 “비엔날레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광주비엔날레가 광주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복합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엔날레 효과를 지역경제와 연결짓기 위해서는 ‘홍행’과 ‘예술’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CEO형 미술기획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

다. CEO형 기획자를 뽑아 비엔날레 개최효과를 지역경제와 연관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라는 한편, 직무수행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평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단이 광주 지역민들과 소통함으로써 비엔날레에 대한 주민의식을 심어주고 행사에 동참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돼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비엔날레 행사가 열리지 않는 비 행사 기간 동안 시민들을 위한 미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현대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동안 비엔날레는 대중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현대 미술을 전시하면서도 현대미술과 교감할 수 있는 시민 대상 미술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지 않아 미래 고객층을 등한시 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와함께 비엔날레 재단의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단 이사회에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신정아 감독 선임은 비롯 행·재정적 의사결정에 관련한 일부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게 한 다음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끝>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www.bohae.co.kr
그린벨트길 13901-589-3111

아름다움이 남는 매취순이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권위있는 American Wine Society에서 주최한 Wine Competition에서 본상을 수상하여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매취순. 더 많은 아름다움을 남기기 위하여 매취순이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아름다움이 남는다 - New매취순

매취純